

## 현자의 선택(2): 아브라함과 니므롯

신학박사 조 덕운

### 성경 말씀: 창세기 12:1-4, 흠정역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람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 1. 대홍수 이후의 세대와 니므롯의 패악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 뿐 아니라 많은 회교도들이 자기네 조상으로 섬기는 역사상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나 실상 아브라함은 당대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축업을 하여 상당한 부를 이뤘지만 왕도 아니요 족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구절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평생 이국 땅에서 살면서도 약속을 믿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이 살던 유브라데스강 연변의 풍요로운 고향 땅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남쪽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을까요? 왜 그는 평생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하늘에 있는 약속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유랑의 신앙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창세기 10 장을 보면 노아의 대홍수 이후의 세상 일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가 나온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걸출한 인물은 당대에 강한 사냥꾼이었는데, 그가 사냥꾼에서 왕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그는 오늘날 이라크의 유브라데스강 연변의 세상을 지배하는 큰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통솔하여 여러 성읍을 건설하였고, 이들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였는데 그 중 어떤 도시들의 흔적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창세기 10:8-12]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네였으며, 그 땅에서 앗수르가 나아가 니스웨와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 또 니스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니라.*

그러나 노아의 증손자인 니므롯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항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창세기 11 장에서 우리는 이 반역의 무리가 바벨에서 거대한 탑을 건설하여 하늘까지 이르려는 사악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고대 히브리 역사서인 ‘야세서 [Ancient Book of Jasher]’는 여호수와, 다윗,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권위있는 책으로서, 성서는 아니지만 성서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유용한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10:13, 삼하 1:18, 딤후 3:8]. 야세서에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 관해 자세히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노아의 10 대손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발걸음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지만, 크게 된 후에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 반하나님 세력의 우두머리로서 사악한 통치자로 전락해 버렸고 아브라함과 평생 악연이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의 손에 죽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니므롯의 최고위급 장군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니므롯의 정책에 따라서 우상들을 경배하는 위선자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아브람의 출생시에 하늘에 나타난 신비한 징조를 이유로 니므롯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른 아이를 대신 죽임당하도록 내어 주고, 10 년동안 어린 아브람을 굴속에 감추어 비밀리에 길렀습니다. 열살이 되자 아브람은 굴을 나와 당시에 생존하고 있던 노아 할아버지와 셈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39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물론 그동안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두분 할아버지로부터 창세로부터 대홍수에 이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50 세가 된 아브람은 부친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온 집이 우상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도끼로 이 우상들을 모두 깨뜨리고 부친에게, 어떻게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라고 따지면서 격렬히 비난합니다. 화가 난 부친은 니므롯 왕에게 이러한 자기 아들에 대하여 실토하면서 옛날 아브람이 출생할 때에 자신이 왕을 속인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리하여 아브람은 감옥에 갇히고 자신의 형인 하란과 함께 극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란은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보호하시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니므롯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아브람을 어찌할 수 없어 풀어줍니다.

아브람은 하란의 딸인 사라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목축업을 하면서 15 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자기 부모 형제들을 니므롯의 우상 숭배에서 구출하려는 목적으로 하란으로 되돌아가 5 년을 보내지만, 부친 데라는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죽게 되면서 아브람은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재차 부르심을 받고 70 여명을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때에 아브람의 나이가 75 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의 12:1 절에서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에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었던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자신의 친족들을 완전히 포기하였으며, 지시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 유랑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4 년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 99 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8-10]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라.*

## 2. 아브라함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소년 시절부터 75 세까지 몇번의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하였는데 이를 요약하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해 보기로 합니다.

가. 아브람은 훗날 다윗의 경우와 유사하게 악한 왕인 니므롯의 위협을 피하여 태어나서 10 년간을 굴속에 숨어서 생활하면서 세상에 악과 선이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0 세가 되자 노아 할아버지와 셈

할아버지가 함께 사시는 집으로 옮겨가서 그들의 보호아래 39 년을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로부터 우주 만물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아담 할아버지의 원죄와 그로 인한 에덴동산으로부터의 축출, 그 이후 대홍수에 이르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 충실하면서 그와 동행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 50 세의 아브람은 부친과 교류가 거의 없이 성장하여 이제 중년의 성인이 되어 부친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이 12 개의 우상으로 가득차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여 이것들을 모두 부셔 버림으로써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장사의 도구로 삼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체제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진열대들을 뒤엎으심으로써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종교를 과감히 떨쳐 버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 50 세의 아브람은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악한 니므롯 왕을 두려워 하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오히려 그를 꾸짖고 옥에 갇혔고, 이어서 극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에도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사흘 밤낮을 온전히 견딘 후에 옷깃 하나 그을림도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이런 경험은 훗날 여러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으며, 온 유대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장년이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청년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정열과 헌신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라. 아브람은 55 세에 일차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살다가, 15 년 후에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구출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데려 오겠다는 생각으로 고향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거기에서 5 년을 지냈지만 부모, 형제들은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고, 70 여명의 고향 사람들이 그와 동행하기로 하여 한 때를 이루고 영원히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모 형제들에 대한 생각으로 인하여 버렸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편이 더 나았음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부모 형제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매정하지만 그들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충실하는 편이 그분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셨고 [창 11:9], 이전까지 하나이었던 육지를 여러 개의 대륙으로 나누셨습니다 [창 10:25]. 그러면서 사람들은 창세기와 대홍수의 이야기와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문화를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한 민족을 형성하고, 이집트로 내려가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므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산의 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일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받아 들이고 그분을 숭양하며 매일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또는 친구가 되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에 참여하는 권리를 얻게 되며, 하늘 왕국에 가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28-29]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